

김진수의 '윈발', 팀 승리로 이끌다

전북현대, K리그 개막전 전남에 2-1로 이겨

김진수, 전반전 선제골 등 맹활약으로 K리그 데뷔

전북 현대의 녹색 유니폼을 입은 김진수(25)가 탁월한 기량을 선보이며 100점 만점의 K리그 데뷔를 했다.

전북은 5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KEB 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1라운드 개막전인 호남더비에서 김진수의 선제골 후 폐쇄신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김진수의 극적인 골로 전남에 2-1로 이겼다.

전북의 승리를 만든 선제골은 김진수의 윈발에서 나왔다.

김진수는 지난 1월 독일 분데스리가 TSG 호펜하임에서 전북으로 이적했다. 2012년 일본 알비렉스 니가타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날이 자신의 K리그 데뷔전이었다.

김진수는 예상대로 선발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포백라인의 왼쪽 측면 수비수를 맡았다. 초반부터 특유의 활발한 오버래핑으로 공격을 지원하며 K리그 데뷔를 했다. 자신의 주역할인 공격 지원을 하고 침착하게 수비망을 형성한 그는 선제골이 필요한 전반 39분 팬들을 열광시키는 '큰 일'을 해냈다. 바로 승부를 결정할 선제골을 자신의 발로 만든 것이다.



5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전북현대모터스와 전남드래곤즈의 경기 가운데 전북현대 김진수 선수(오른쪽)가 선제골을 넣은 뒤 김민재 선수와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전북은 아크 정면에서 프리킥을 얻어냈다. 김진수, 신행민, 이승기가 프리킥을 준비했다. 이승기나 신행민이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프리킥은 김진수가 시도했다. 김진수의 발을 떠난 볼은 그대로 전남 골대 안으로 꽂혔다. 김진수의 윈발이 정확하지만 프리킥을 시도할 것이라고는 예상

하지 못했다. 전북은 전남의 허를 찌르는 세트피스로 골을 만들었다. 김진수는 부담스러운 데뷔전에서 승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지난 1년간 호펜하임에서 공식전에 나서지 못했다. 그간의 아쉬움을 털어내는 듯 격정적인 골 세리머니를 펼치며 기쁨을 만끽했다.

후반전 들어서도 김진수는 안정적인 움직임으로 후방을 지켰다. 수시로 왼쪽 측면을 오르내리라며 전남을 압박하며 승리의 기쁨을 만들었다. 전북은 개막전에서 김진수 효과를 누렸고, 김진수는 만점 활약으로 팬들에게 부활을 알렸다.

/김민근 기자

'음주 뺑소니' 강정호,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이미 2차례 벌금형 처벌받았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프로야구 선수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러츠)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강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더 중한 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강씨는 소속팀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조광국 판사는 지난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해 함께 기소된 강씨 중학교 동창 유모(30)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이미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이번에는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그친 게 아니고 교통사고까지 냈다. 제반사정을 보면 가벼운 사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드레일 파편들이 도로에 떨어져 뒤따라오는 차량들에게도 위험한 상태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벌금형의 선고가 형벌로 더이상 기능할 수 없다. 징역형을 선택해서 처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말고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유씨에 대해서 조 판사는 "친구를 위해서 벌 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끝나기 전에 유씨가 사실대로 말해서 결과적으로는 형사사법 절차에 방해는 없었다"며 "초범이고 자신

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날 강정호는 선고 후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한 뒤 급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강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2시48분께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고 자신의 숙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호텔로 향하던 중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강씨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 등 약식명령은 적절치 않다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강씨는 재판 일정때문에 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강씨는 세 번째로 교통사고를 내면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강씨는 지난달 22일 첫 공판에서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강씨에게 벌금 1500만원, 유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뉴시스



완주군, 시즌권 구입 전북현대FC 흥행몰이 앞장

올해도 완주군이 전북현대 모터스 구단의 인기몰이에 앞장선다.

군은 군수실에서 박성일 군수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VIP시즌권 6매와 일반권 100매를 구입하고 백승권 단장에게 전달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난해 10년만의 아시아 최정상에 오른 전북현대의 시즌권을 구입해 흥행몰이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지난해 보다 더 보강된 전력을 바탕으로 구단이 원하는 더블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특히 완주군이 흥경기 시즌권 구입을 통해 전북현대 모터스 구단의 해 K-리그 클래식과 FA컵 우승 등 더블 달성에 힘을 보탤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군은 지난해부터 현대자동차와 함께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습구장을 2편을 추가 조성하고 있으며, 향후 우수 클럽하우스 및 연습구장 추가 조성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나영석PD 새 예능은 '요리와 여행'

나영석(41) PD의 새 예능프로그램은 다시 한 번 '요리와 여행'이었다.

케이블 채널 tvN은 지난 3일 나 PD가 배우 이서진·윤여정·정유미와 함께 하는 예능프로그램 제목은 '윤식당'으로, 이들이 인도네시아 발리 인근 섬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는 이야기를 담는다.



제작진은 "복잡한 도시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색다른 일상을 담은 기획이다. 누구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 여유롭고 한적한 곳에서 나만의 작은 가게를 열어보는 꿈을 꾸곤 한다는 생각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그러면서 "촬영지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한적한 여유로움으로 다이버와 여행객 사이에서 전국으로 불리는 곳"이라며 "이서진·윤여정·정유미가 이곳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선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식당'은 '신혼일기' 후속으로 오는 24일 첫 방송된다.

/뉴시스



유해진·성유리,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

배우 유해진(47)과 성유리(35)가 제51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연예인 대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모범납세자 훈장 수상자 가족과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납세자(294명), 세정협조자(68명), 유공공무원(200명) 및 우수기관(8개)이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포상을 받았다.

연예인 중에서는 유씨와 성씨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7개 기업에게는 '고객 납세의 탑'을 수여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